

저기 동산 비탈마다 쓰러져 있는 양떼들은 하늘로 목을 길게 뻗고 숨을 들이마시며, 계곡으로 울려 퍼지라고 구슬프게 울어댔네. 양떼를 몰던 카피르족 사람들도 땅바닥에 드러누워 찬 기운을 찾아보려 했지만, 땅은 어딜 가나 불타고 있었고, 숨 막히는 공기에는 인간 피든 동물 피든 그걸로라도 갈증을 해소하려는 곤충들이 뽕뽕거리는 소리만 한 가득 울렸어.

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즈음의 어느 날 밤, 비르지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모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네. 자리에서 일어났다가, 앉았다가, 다시 잠자리에 들어 보기도 했지만, 어떤 자세를 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잘 쉬지도 못했어. 비르지니는 달빛을 따라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샘터로 걸어가네. 거기서 가뭄에도 불구하고 거무스름한 바위 옆구리를 타고 은빛 물줄기로 흐르던 샘물을 본 게야. 연못으로 비르지니의 몸이 잠겨 드네.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감각을 되살려주고, 수천 가지 즐거운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르지. 어렸을 때 자기 엄마와 마르그리트가 바로 이곳에서 풀과 자기를 함께 목욕시키며 즐거워했던 것이 기억나고, 그러다가 인젠가 풀이 이 연못 탕은 자기만 쓰게 해주더니, 바위에 구멍을 뚫어 침대를 만들어주고, 바닥에는 모래를 깔아주고, 못가에는 좋은 향기가 나는 풀을 심어주었던 기억도 떠오르는 걸세. 물속에서는 어렴풋이, 살이 드러난 두 팔과 가슴 위로 두 그루의 야자나무가